

雞林鬻詩說小考

俞炳禮*

< 目 次 >

- (一) 序 論
- (二) 本 論
 - 1. 계림육시설에 대한 중국측의 관점
 - 2. 신라문단의 상황과 계림육시설의 가능성
 - 3. 일본 平安時代の 白詩流傳狀況
 - 4. 고려시대의 白詩流傳狀況
- (三) 結 論

一. 序 論

中國歷代の 白居易詩 研究者들은 白詩의 영향을 이야기할 때 으레 新羅의 宰相들이 唐에 出入하는 自國의 商人들에게 부탁하여 白詩를 사갔다는 이른바 “雞林鬻詩說”을 引用하기에 주저하지 않는다.

이 계림육시설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元稹 (AD 779 ~ 831)의 《白氏長慶集序》에 보인다.

나는 일찌기 平水 (현재의 浙江省 紹興市 東南에 있는 곳. 譯注)의 저자거리에서 지방학교의 어린 학생들이 다투어 詩를 공부하는 것을 보고 불러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물어 보았는데 모두 한결같이 “훈장님은 우리들에게 백거이와 원진의 시를 가르쳐 줍니다.”고 대답했다.

* 誠信女大 教授

그러면서도 내가 원진임을 알지 못했다. 또 말하기를 “신라에서 온 장삿꾼들이 백거이의 시집을 부지런히 사 모으는데 그들의 말이 ‘우리나라의 재상들이 白居易의 시 1)를 사는데 그가운데 가짜가 있으면 금방 가려 낸답니다.’라고 하더군요.”라고 했다. 생각해 보면 시가 저어진 이래로 이처럼 널리 流傳되고 있는 것도 없을 것이다.²⁾

이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진은 계림육시설을 시골서당의 학동들에게 들은 것일 뿐 자신이 직접 신라에서 온 상인을 만났다거나, 신라상인들에게 시집을 판 唐의 서적상을 통해 들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傳說의 可信度는 어느 정도인가? 애석하게도 우리나라 傳來의 文獻으로서는 이 계림육시설을 증거할 만한 것이 없다. 필자의 寡聞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신라·고려 이래의 文獻가운데서 이 계림육시설에 대한 언급을 보지 못했고 조선조 후기의 李瀾(1681~1763)에 이르러서야 한마디의 評說이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半信半疑의 것일 뿐, 그대로 믿고 받아 들인 것은 아닌 듯 하다. 《星湖僊說·詩文門》에 「雞林鸞詩」條가 있다.

王世貞의 藝苑后言에 이르기를 “大曆年間に 新羅國에서 上書하여 蕭顯士를 國師로 삼기를 청하였고, 元和年間에는 신라의 상인들이 元白詩를 사면서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재상들이 한편에 百金씩에 사간다.

- 1) 本句節은 문맥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雞林鸞詩의 “詩”를, 白居易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고 元稹과 白居易의 詩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역대의 論者들은 대부분 白居易詩의 流傳상황을 설명할 때 계림육시설을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도 通例를 따르기로 하였다.
- 2) 予嘗於平水市中, 見村校諸童競習詩, 召而問之, 皆對曰: “先生教我樂天·微之詩.” 固亦不知予之爲微之也. 又云: “雞林賈人, 求市頗切, 自云 ‘本國宰相每以百金換一篇, 其甚僞者, 宰相輒能辨別之’.” 自篇章已來, 未有如是流傳之廣者. (元鎮 白氏長慶集序)

그가운데 가짜가 있으면 금방 알아낸다.’ 고 했다 한다. 嘉靖初에는 朝鮮國에서 上書하여 關西地方의 呂某와 馬某의 文章을 보내주면 文章의 典範으로 삼겠다고 했다.” 내가 생각하건대 大曆이나 元和의 일은 혹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嘉靖年間の 일이라면 우리나라의 文物도 이미 갖추어져 있었는데다 이른바 呂某, 馬某는 누구를 말하는지도 모르겠으니 어찌 나누어 달라고 청했겠는가? 만약 그사람들의 文章을 얻어 읽고 싶으면 사람 하나 보내어서 사오면 그만일 것이므로 上書를 보낸다는 따위의 일은 필요없었을 것이다. 그말을 믿을 수 없는 정도가 이와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典籍을 具備치 못해 비록 本國의 故事까지도 늘 중국인이 한 말을 빌어 증거로 삼는데 이는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³⁾

이와같이 이익이 말하고자 하는 主旨가 계림육시설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른바 계림육시설에 대해서도 그다지 信憑하는 태도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蕭頴士의 일이나 계림육시설을 否定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혹 있었을 지도 모르겠다.”는 半信半疑的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인 것이다.

필자는 이익의 반신반의적 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이른바 “계림육시설”을 否定하고 이것은 “日本鬻詩說”의 訛傳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에 계림육시설에 대한 中國側의 觀點과, 신라시대 문단의 상황 및 이당시 신라와 더불어 唐과의 交易이 가장 빈번했던 나라의 하나인 日本의 平安朝時代의 문단분위기를 살펴 봄으로써 日本육시설의 蓋然性을 살펴 보고자 한다.

3) 王元美藝苑卮言云：「大曆中，新羅國上書，請以蕭夫子頴士爲師。元和中，雞林賈人鬻元白詩云：東國宰相以百金易一篇，僞者輒能辨。嘉靖初，朝鮮國上言，願頒示關西呂某馬某文以爲式。」大曆・元和事，容或有之，至於嘉靖，則我國之文物既備，所謂呂馬未知誰指，而豈至於請頒耶？如欲得其文而讀之，使一行人齎金往鬻足矣，不待上書而後得也。其不可信如此。東人典籍不具，雖本國故事，每憑華人賴舌爲證，甚加笑也。

二. 本 論

1. 계림육시설에 대한 中國側의 觀點

歷代에 걸친 중국측의 雞林鬻詩說 觀點은 모두 前述한 元稹의 《白氏長慶集序》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一律적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新唐書·白居易傳》에 이르기를,

신라의 상인들이 自國의 재상들에게 파는데 대체로 한편에 一金을 받는다. 4)

이 기록에서 元稹의 기록과 다른 점이 있다면 ‘百金’을 ‘一金’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라 하겠다. 百金이나 一金이 어느 정도의 購買力을 가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시의 制度에 대한 考究가 있어야 겠지만 어쨌든 적은 액수는 아니었을 것이며 一金으로 바꾸어 놓은데서 史家의 誇張排除意識이 적용했을 것임도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淸高宗의 勅撰인 《唐宋詩醇》에서는,

史書에 이르기를 白居易詩가 쓰여질 때마다 독서인들이 널리 읽었다 하며 신라의 상인들은 自國의 재상들에게 팔았다고 한다. 詩名의 드높음이 과거에 그 짝이 없었다. 5)

고 하였다. 淸 趙翼(1727 ~ 1814)은 《甌北詩話》에서,

4) 雞林行賈, 售其國相, 率篇易一金.

5) 史稱其每一篇出, 士人傳誦, 雞林行賈, 售其國相. 詩名之盛, 前古罕儼矣. (愛信覺羅弘曆等 唐宋詩醇 卷 19)

신라의 상인들이 부지런히 사모으며 “우리나라의 재상들이 비싼돈으로 사는데 가짜가 있으면 가려낸다.”고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자고로 시인 가운데 생전에 이름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보다 신속하면서도 널리 알려진 사람도 없었다.⁶⁾

고 기록하고 있다. 梁容若은 이러한 관점을 이어,

舊唐書에 신라의 재상이 비싼돈으로 白居易의 시를 산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元纘의 말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것이다.⁷⁾

라 하였다. 楊向時는 이에 더하여,

白居易詩는 멀리 異國에 까지 傳播되었으며 심지어 가짜를 만들어 진짜와 섞어 놓는 사람까지도 있었으나 신라의 재상이 이를 가려낼 수 있었다 한다. 이는 오늘날 위조지폐 감별가가 가짜돈을 한눈에 식별해 내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詩人의 佳話가 아니겠는가?⁸⁾

라 말하고 있다. 이상의 舉例와 同一線上에 있는 議論들은 얼마든지 더 있다. 이처럼 중국측의 경우 아무도 ‘계림육시설’에 異議를 단 적이 없는듯 하다.

2. 신라文壇의 狀況과 계림육시설의 가능성

-
- 6) 又雞林賈人求市頗切, 云其國相每以百金換一篇, 有甚僞者, 亦能辨之. 是古來詩人及身得名, 未有如是之速且廣者. (甌北詩話 卷四)
- 7) 舊唐書記載, 雞林國的宰相, 以百金換一篇白香山詩. 是根據元纘的話, 應當可信的. (白香山的生平和作品. 文壇, p.11)
- 8) 白詩流傳, 遠及異域. 甚至有人僞造贗品, 欲以魚目混珠, 而雞林宰相且能辨別, 則又如今日之僞鈔精鑑者一目了然, 豈非詩人佳話? (楊向時, 香山撫述. 國立政治大學學報. 第一期, p.332)

993년의 長久한 역사를 누린 신라왕조 (BC 57 ~ AD 935)에 있어 백거이의 詩가 신라에 流傳되었다면, 이는 적어도 白居易가 신악부운동을 전개, 중국시단을 영도하며 왕성한 창작활동을 보여주었던 807년후의 일일 것이다.

원진이 白氏長慶集序에서 雞林鬻詩說을 주장한 시기가 AD 824년의 일이니, 白居易詩는 적어도 807년에서 824년 사이에 新羅에 流入, 인구에 회자되었을 뿐만 아니라, 돈과 시를 맞바꾸는 현상 및 白詩의 眞僞를 구별할 줄 아는 재상까지 출현했어야만 원진의 계림육시설은 그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9세기 初 통일신라시대의 文學 主流는 향가문학이었다. 趙潤濟는 《韓國文學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鄉歌文學의 成立年代는 不得已 그를 表記하는 吏讀文學의 發明年代에서 求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으나, 나는 그 發明年代를 大綱 新羅의 統三期라 보는데, 그렇다면 鄉歌文學의 成立도 亦是 三國統一의 前後로 보아야 될 것이다.⁹⁾

李家源은 《韓國漢文學史》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新羅一代의 文學을 통틀어 논한다 하더라도 鄉歌가 가장 主潮的인 位置에 놓여 있음은 누구라도 否認하지 못할 사실이었으며 …… 그러나 統三以前の 鄉歌는 그 全體的인 面에 있어서 初步的인 始響에 지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¹⁰⁾

이처럼 白居易 在世時인 統一新羅期 文學의 主流는 鄉歌文學이 있으며 九世紀末에 이르러서는 향가문학의 集成인 《三代目》이 魏弘과 大

9) 韓國文學史. 探求堂, p. 33.

10) 韓國漢文學史. 民衆書館, p. 29.

矩和尚에 의해 편찬되었던 것이다. 그 작품이 量으로 보아 상당히 많았을 것인데도 不拘하고 불과 十四首밖에 遺傳하지 않는것은 엄청난 散佚이요 哀惜한 일이라고 11) 趙潤濟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新羅에 대한 漢文學의 영향은 어떠하였던가? 李家源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新羅의 一代를 통틀어 논한다 하더라도 향가가 그 時代文學의 主潮를 占有했던 만큼 純粹한 漢文學의 確立은 그의 末期에 이르러서야 그 風貌를 갖추었던 것이다. 12)

唐詩에 대한 신라인들의 이해와 嗜好의 분위기는 아무래도 羅末 寶貢諸子들의 귀국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高麗의 崔澣(1287 ~ 1340)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進士科를 통해 人材를 登用함은 唐代에 성했다. 長慶初에 金雲卿이란 사람이 처음으로 新羅寶貢科에 及第하였는데 題名은 '杜師禮勝'이었다. 이때부터 天祐가 끝날 때까지 빈공과로 登第한 사람이 58명이나 되었다. 13)

長慶初라면 唐 穆宗의 在位時로 AD 821年 즈음일 것이고, 天祐는 哀宗의 年號로 天祐 四年(AD 907年)에 唐은 亡하였으니 그기간은 87年間이다. 이기간동안 신라인으로서 唐의 寶貢科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考證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23人이며 入唐年月, 登第時期, 返國時期, 唐에서의 官職 등에 대하여 圖表化하면 다음과 같다. 14)

11) 趙潤濟, 同書, p. 35.

12) 李家源, 同書, p. 69.

13) 進士取人, 本盛於唐. 長慶初, 有金雲卿者, 始以新羅寶貢, 題名杜師禮勝. 由此以至天祐終, 凡登寶貢科者, 五十有八人(東文選 卷八四. 送奉使李中父還朝序)

| 姓 名 | 入唐年月 | 登第年月 | 返國年月 | 唐 朝 官 職 |
|-----|------------------|--------------------------------------|--------------|---------|
| 金雲卿 | | 長慶年間 821-824 | 會昌元年 847 | 兗州都督府司馬 |
| 崔利貞 | 元和年間 806-820年 | 825年頃 | 825年 | |
| 金淑貞 | 同 上 | 同 上 | 同 上 | |
| 朴秀業 | 同 上 | 同 上 | 同 上 | |
| 金允夫 | 寶曆元年 825年 | 太和(827- 835)~ 開成(836~ 840)間 | | |
| 金立之 | 同 上 | 同 上 | | |
| 林亮之 | 同 上 | 同 上 | | |
| 金夷吾 | | | | 唐使 |
| 金可紀 | | | | |
| 崔致遠 | 咸通九年 868年 | 乾符元年 874年 | 中和四年 884年 | 宣州溧水縣尉 |
| 金紹渤 | | 乾符末 879年 | 文德元年 888年 | 太學博士 |
| 朴仁範 | | 乾符元年 877年 | | |
| 金 渥 | | 同 上 | | |
| 李 同 | 咸通十年 869年 | 乾符六年 (879) 或廣明元年 (880) | | |

14) 圖表는 嚴耕望의 논문 《新羅留唐學生與僧徒. 中華民國 中央研究院 史語所集刊外編第四種》을 참고하였다.

| | | | | |
|-----|----------------------------------|--|-------------------------|-------|
| 金茂先 | 乾符二年 (875) ~ 光啓二年 (886) | 僖宗末 ~ 昭宗初 887 ~ 888 年 | 文德元年 888 年 | |
| 楊 穎 | 同 上 | 同 上 | 同 上 | |
| 崔 渙 | 同 上 | 同 上 | 同 上 | |
| 崔匡裕 | 同 上 | 同 上 | 同 上 | |
| 崔仁澆 | | | | |
| 崔承祐 | 龍紀元年 889 年 | 景福二年 893 年 | | |
| 金文蔚 | | 乾寧(894 ~ 897) ~ 光化(898 ~ 900) 間 | 天祐三年 906 年 | 工部員外郎 |
| 崔 襄 | 大順二年 891 年 | 乾寧, 光化 或 天復 (901 ~ 903) 間 | | |
| 崔彦擣 | 同 上 | 天祐三年 906 年 | 梁貞明年 間(915 ~ 920) | |

이로써 알 수 있는것은 빈공제자들이 귀국한 해는 寶曆元年(AD 825)의 崔利貞 等 三人의 경우가 최초라고 할 수 있다. 그가운데서 AD 890年 前後에 귀국한 경우가 가장 많은데 이는 韓國 漢文學이 신라말기에 이르러서야 발전하기 시작했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AD 890年 전후는 白居易가 죽은지 40여년이 지난 시기인 것이다.

이당시의 대표적 인물인 崔致遠은 적지않은 詩文을 남기고 있는데 現傳하는 모든 作品은 成大 大東文化研究院에서 刊行한 《崔文昌侯全集》

에 收錄되어 있다. 그러나 全篇을 통하여 白居易詩와의 영향관계를 논할만한 아무런 흔전도 남아있지 않다. 최치원이 唐의 시인들과 比肩할 만한 높은 수준의 작품을 남기고 있지만 그의 作品으로서는 당시 신라 문단의 방향을 바꿀 수는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당시 문단의 主流는 여전히 신라고유의 詩體인 鄉歌였기 때문이다. 또한 당시의 신라에는 唐나라에서 행했던 賦詩取士의 進士科가 없었으므로 詩의 創作이나 감상이 文壇의 主流가 될 수 있는 土養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元聖王四年(AD 778年)에 설치된 讀書三品科는 관리채용을 위한 일종의 국가시험제도였다. 이에 의하면 독서의 성적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어 관리를 채용하는 것이었는데 下品の 科目에 《文選》이 들어 있다. 三科의 科目은 다음과 같다.¹⁵⁾

上品 - 論語・孝經・禮記・周易
 中品 - 論語・孝經・左傳・毛詩
 下品 - 論語・孝經・尙書・文選

이를 통해서 보면 文學方面에서는 《文選》이 유행하였을 것임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文選》에 收錄된 作品은 六朝時代에 그친다. 여기에서도 唐詩가 盛行하였을만한 가능성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九世紀에 있어 신라에서 白居易詩가 유행하였음을 證據하는 자료는 아무것도 없다. 뿐만아니라 당시의 시대적상황을 살펴보아도 그 蓋然性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백거이의 시가 어떻게 一世를 風靡할 수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그 眞僞를 辨別할 수 있었을 것인가? 하나의 커다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15) 李基白 韓國史新論 一潮閣, p.103 참조.

3. 日本平安朝時代의 白詩流傳狀況

신라의 ‘文獻不足徵’의 상황과는 달리 당시의 日本에 있어 白詩가 크게 流行했음은 特異한 일이었다. 이른바 平安朝時代란 桓武天皇이 지금의 京都인 平安京에 도읍을 정한 AD 794年부터 源賴朝가 鎌倉에 幕府를 開設한 1192年까지의 四百餘年間을 지칭하는데 여기에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平安 전후기로 나누었을때의 그 前期에 국한된다.

이시기의 정치는 물론이지만 學問까지도 귀족의 手中에 있었고 文學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의 漢文學은 奈良時代 이래 계속하여 唐에 遣唐使를 보내던 平安朝의 仁明天皇(在位 834 ~ 850)에 이르기 까지 대단한 隆盛을 보였다. 그들 또한 신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使臣을 비롯한 求道僧과 留學生의 來往이 빈번했던대다 朝廷과 貴族들이 學問을 장려하는 분위기였으므로 漢文學의 隆盛은 매우 당연한 것이었다.

白居易의 文集은 白氏가 生存했던 때 이미 日本에 전해 졌으며 平安朝初期의 君主인 嵯峨天皇(在位기간은 810 ~ 823年)은 특별히 白詩를 좋아하여 한가지 佳話를 남기고 있다. 嵯峨天皇의 在位期는 中國에 있어 唐 憲宗元和年間과 穆宗의 長慶年間に 해당하며 이시기는 白居易와 韓愈등의 詩文名家가 두각을 나타내던 때였다.

嵯峨天皇은 白氏文集을 秘藏하고 있었으며 河陽宮에 갔을 때 “閣門을 닫으니 아침 저녁의 북소리만 들리고, 樓臺에 올라 멀리 오가는 배를 바라본다.”(閉閣唯聞朝暮鼓, 登樓遙望往來船)는 詩句를 지어신 하 小野篁에게 보였더니 篁이 말하기를 ‘遙’字를 ‘空’字로 바꾸면 意境이 더욱 妙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嵯峨天皇은 “그대의 詩情이 白樂天과 같다.”(卿之詩情, 與樂天同)고 하였다는 故事가 《江談抄·卷四》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仁明天皇 五年 (AD 838) 에 太宰少貳 藤原岳守가 “唐나라 商人들의 貨物을 검사하다가 元白의 詩筆을 얻어 임금에게 바치자 임금은 매우 기뻐하면서 從五位上의 벼슬을 藤原岳守에게 주었다는 기록이 《文德實錄·卷三》에 실려 있다. AD 838 年이라면 白居易 (772 - 846) 在世時에 해당한다.

嵯峨, 仁明에 뒤이은 醍醐天皇 (在位期間 898-930) 은 일찌기 菅原道眞 (845-903) 이 바친 家集을 보고 언급하기를 “菅原氏에 詩趣가 白居易에 못지 않으니, 이후로는 白詩는 펼쳐볼 일 없겠구나.” (更有菅家勝白樣, 從此拋却匣塵深) 라 하고 自注를 달기를 “내 평생 아꼈던 책은 바로 白氏文集七十권이였다. 이제 菅原家때문에 다시 펴볼일이 없겠다. (平生所愛, 白氏文集七十卷是也, 今以菅家故, 不復開秩) 라 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醍醐天皇이 白詩를 얼마나 愛好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몇가지 사실을¹⁶⁾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白居易의 詩는 당시의 日本文壇에서 여타의 시인들에서 類例를 찾을 수 없을 정도의 重視와 愛護를 받았던 것이다.

江戸時代의 史家인 林鶴峰은 당시의 文壇狀況을 논하는 가운데서,

文選이 우리나라에서 읽혀진지 오래되었다. 嵯峨帝가 통치할 때 白氏文集이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래되었는데 詩인들이 文選과 白詩를 모방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¹⁷⁾

고 하였고 金子彦二郎은,

16) 이상은 緒方維精著, 丁策 中譯의 日本漢文學史 (台北 正中書局, 1976) 를 참고하였다.

17) 文選行於本朝久矣, 嵯峨帝御宇, 白氏文集全集始傳來本朝, 詩人無不仿文選·白氏者. (朱雲影, 中國文化對日韓越的影響. 黎明文化事業公司 刊 1981. p.69에서 재인용)

白居易의 文集은 당시 문인들에 의해 보물처럼 떠받들려 졌으며 白氏 文集의 詩題·文題·詞藻·韻律·意境 등이 모방과 학습 및 표절의 대상이 되었다.¹⁸⁾

고 記述하고 있다. 梁容若은 白居易詩가 日本에서 流傳되었던 情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平安時代의 漢學世家인 菅原, 大江 두 家門은 모두 《長慶集》의 崇拜者였다. 菅原道眞의 《菅家文章》에 五百餘首의 詩가 수록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百數十首의 詩는 意境과 詞藻에 있어 모두 白詩를 표절한 것이다. 大江千里가 지은 《句題和歌》는 115 首인데 이는 漢詩의 名句들을 노래로 번역한 것으로 그 가운데 74 首는 白香山의 詩에서 딴 것이다. 大江維時가 편집한 《千載佳句》는 258 部門으로 나누어 1100 聯의 詩를 수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唐代의 詩人 150 명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으며 白香山의 詩는 500 聯이 넘는다. 藤原公任이 편집한 《倭漢朗詠集》은 漢詩를 通俗化, 音樂化한 가장 유행하던 책인데 白居易의 詩가 137 首(緒方楡精의 日本漢文學史에 의하면 141 首, 譯者注)나 수록되어 있다. 이 모든것은 日本人들의 白居易에 대한 편애를 나타내는 것들이다. 中國人들은 杜甫를 詩聖이라 하지만 日本의 山野美材는 白居易를 詩聖이라 하여 '太原居易詩聖'이라 부르고 있다.¹⁹⁾

18) 同書, p. 70 에서 재인용.

19) 平安時代의 漢學世家菅原·大江兩家, 都是長慶集의 崇拜者·道眞의 《菅家文章》, 收詩五百多者, 裡邊有一百幾十首意境詞藻, 都是襲取香山. 大江千里作《句題和歌》, 凡一百十五首, 是把漢詩名句, 翻譯成歌, 其中有七十四首採了白香山의 詩. 大江維時輯《千載佳句》, 分二百五十八門, 收詩一千一百多聯, 包括唐代一百五十個作家, 白香山作了五百多聯. 藤原公任輯《倭漢朗詠集》, 是一部漢詩音樂化通俗化最流行的選本, 白氏의 話句收了一百三十七首, 這都可以看出日本人對於白氏의 偏愛. 中國說詩聖是指杜甫, 日本의 山野美材却說「太原居易詩聖」. (梁容若. 白香山의 生平和作品. 文壇, p. 11)

이처럼 白居易의 詩가 日本에서 가졌던 영향력은 신라는 물론이고 中國本土에서도 그 類例가 없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그 원인에 대해 日本學者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岡田正之는 《日本漢文學史》에서 세가지의 원인을 들고 있다. 첫째, 白詩가 唐에서 유행했던 점. 둘째, 白詩의 平易하고 流暢한 점. 셋째, 白詩가 가진 농후한 佛敎色彩 때문이라는 것이다. 金子彦二郎은 《平安時代文學と白氏文集》에서 네가지의 원인을 들고 있다. 첫째, 白詩를 낭개 했던 당시 唐의 社會 분위기와 日本 平安時代의 社會 분위기가 酷似했다는 점. 둘째, 白居易의 地位와 身分이 日本 平安朝時代 文學人들의 地位 및 身分과 酷似했다는 점. 셋째, 白居易의 性格, 趣味, 사람됨이 平安朝時代의 전형적인 日本人과 동일유형에 속했다는 점. 넷째, 白居易의 文集은 質과 量의 두방면에 있어 平安時代 文學人들에게 文學事典 겸 辭典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이 그것이다.²⁰⁾

우리는 앞에서 ‘계림육시실’을 처음 기록한 元稹이 이것을 신라의 상인이나 白詩를 신라상인에게 판 중국의 상인들에게 들은 것이 아니라 晝堂의 어린 학생들에게 들은 것을 기록한 것임을 살펴 본 바있다. 그렇다면 學童들이 상인에게 얻어들은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더라도 중국측 상인들이 白詩를 사려는 願買者의 國籍을 誤認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再考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現今에 있어서도 중국의 거리나 商場에서 만날 수 있는 중국인들은 韓國人을 日本人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非一非再하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의 경우에 있어서도 상황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平水の 書籍商들이 日本人을 新羅人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想定하기가 어렵지 않다. 또한 당시의 신라와 일본에 있어서의 白詩流行을 알 수 있는 文獻을 통해서 볼 때 그 蓋然性이 없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元稹의 序文가운데서 「雞林」을 「日本」으로 換置해 본다면 史實과 더욱 符合하는 것일 가능

20) 緒方維精, 前掲書, p.83

성도 있다.

이러한 推論은 당시 신라와 일본이 唐나라에 派遣하던 遣唐使의 入唐路線을 살펴보는 데서도 그 蓋然性을 確保할 수 있다. 統一新羅에 있어서는 韓半島 서해안과 山東半島의 登州를 잇는 海路가 그 主要路線이었을 것이다. 長江以北의 江蘇省의 港口도 入唐의 據占이었다 하나 主要路線은 아니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日本에 있어선 北路, 南島路, 南路의 세 노선이 있었다. 北路는 一名 新羅道라고 하였으며 그 노선은 일본을 떠나 對馬島 - 濟州島 - 韓半島西海岸 - 山東半島의 登州 - 萊州海岸山陸 - 靑州 - 兗州 - 曹州 - 汴州 - 洛陽 - 長安에 이르는 길이었다.

南島路는 신라의 三國統一 以後 羅·唐의 관계가 惡化되었던 시기에 北路를 택할 수 없었던 당시의 국제정세에 의해 AD 702년부터 개척하였던 노선이다. 그 노선은 일본을 출발하여 種子島 - 屋久島 - 寶七島 - 奄美大島 - 沖繩島를 거쳐 長江下流 海岸에 上陸하여 陸路로 揚州, 楚州를 거쳐 長安에 이르는 것이었다.

南路는 大洋路라고도 하며 日本을 출발하여 平戶島 - 小値賀島 - 福江島를 거쳐 南支那海를 지나 長江下流·海岸에 上陸한 다음 揚州, 楚州를 거쳐 長安에 이르는 길이었다.²¹⁾

이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일본은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후로는 北路를 포기하고 南島路와 南路를 이용하였고 그 가운데서 注目할 점은 그 上陸地點이 모두 長江下流의 海岸에 臨한 都市라는 점이다. 元稹이 이른바 ‘계림육시설’을 들은곳이 바로 平水요 平水는 長江下流에 위치한 紹興府에 속하는 地名임을 생각할 때 ‘雞林’이 아니라 ‘日本’일 蓋然性은 또하나의 妾證을 確保할 수 있다. 이 개연성을 굳히기에 一助가 되는 또하나의 방증이 있다. 그것은 浙江省에 도착한 日

21) 中村新太郎著 張柏霖中譯, 中日二千年 台北文鏡文庫, 1986.12, pp.81 ~ 83 참조.

本 遣唐使의 전체인원 가운데서 使臣들과 隨行員 등 대략 50여명 좌우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수백명의 人員들은 內陸으로 들어갈 수 없었으며 長江支流의 沿岸이나 揚州등지의 해안도시에서 사신들이 長安에 다녀오기 까지의 짧은 수개월, 길게는 일년까지의 시일을 기다려야 했던 것이 당시의 제도였다는 점이다.²²⁾ 일본 상인들의 상행위는 이때에 이루어 졌을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경우 對唐交易에 있어 위험한 南路를 택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보다 안전한 이른바 新羅道를 통하여 唐과 交易하였을 것이다. 山東의 登州에 신라인의 집단거류지인 新羅坊이 있었고 그들을 관할하기 위한 新羅所라는 행정기관까지 있었던 사실이 그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때 신라와 일본의 對唐交易窓口는 각각 長江以北과 長江以南地方으로 나누어 진다. 이점 또한 '日本 육시설'의 개연성에 있어 하나의 補充資料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高麗時代의 白詩流傳狀況

上述한 바와같이 白居易가 생존하고 있던 당시의 日本에서는 白詩酷好의 異常氣流가 형성되어 一世를 風靡했음을 알 수 있지만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알려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측의 자료로서는 고려이전의 文籍가운데서 白詩流傳의 상황을 알리는 片言隻字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문적가운데서도 中期의 인물인 李奎報(1168 ~ 1241)의 《李相國集》에서야 처음으로 白居易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 《李相國集》에는 「次韻白樂天病中十五首」등 수편의 詩가²³⁾ 수록되어 있지만 수천수에 달하는 이규보의 詩세계에 있어서 占하는 분량은 극히 미

22) 同上書, p.87 참조.

23) 成大大東文化研究院刊 高麗名賢集에 수록된 「李相國集」에 보이는

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규보 이외에 李齊賢(1301~1367)의 《益齋集》에도 白居易와 관련된 부분은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白樂天真讚》과 《小蠻》의 두편에 불과하다. 白居易가 晩年에 駱馬를 팔고 愛妾 小蠻을 贖身해 준 故事를 인용한 것일 뿐 李奎報처럼 白詩를 和韻한 것은 아니다.

우리의 注意를 끄는 것은 고려시대 문인들의 現傳하는 문집 대부분이 收斂되어 있는 《高麗名賢集》가운데서 白居易의 이름을 云謂하거나 和韻한 사람이 이규보·이재현 두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로써 보면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白詩는 그다지 流行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推論이 가능하다. 이 상황은 朝鮮時代에 와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일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느 한 시기를 風靡하는 傾倒的 분위기는 有은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

上記한대로 이규보의 文集에 白詩를 和韻한 몇수의 시가 실려 있지만 그것은 모두 백거이가 晩年에 지은 閑適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규보가 백거이에게 ‘文章合爲時而作, 歌詩合爲事而作’으로 代言되는 現實主義的 文學理論과 그것의 具體的인 實現인 諷諭詩의 세계가 있었음을 알았는지에 대해서도 알길이 없다. 그러나 이규보가 次韻한 白詩가 모두 閑適詩에 속한다는 것 이외에 다음의 詩를 살펴볼 때 唐代의 시인가운데서 가장 濃度질은 풍자시를 썼던 白居易의 詩世界에 대한 精確한 인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推論이 가능하다.

것으로 p.457의 「次韻和白樂天病中十五首」외에도 「既和樂天十五首詩因書集背」(p.459), 「又和樂天心身問答」(p.459), 「次韻白樂天出齋日喜皇甫十訪」(p.462), 「觀白樂天集……」(p.463), 「次韻白樂天老來生計詩」(p.468), 「次韻白樂天負春詩」(p.469), 「次韻白樂天春日閑居」(p.469), 「次韻白樂天在出家詩」(p.470), 「既和樂天詩獨飲戲作」(p.477) 등의 詩篇이 보인다.

근대의 詩人들은,
 風雅의 뜻을 모르고,
 껌질만 번지르르히 꾸며
 한때의 노리개되길 바라네.
 뜻이란 원래 천부적인 것이어서
 갑자기 이르게 하긴 어려운 것.
 얻기가 어렵다고 여겨
 형식 꾸미기에만 힘쓰네
 이로써 사람들을 현혹하여
 부족한 데를 가리려 하네.
 이런 분위기가 차츰 무르익어
 작품의 格은 땅에 떨어졌다.
 李·杜가 가고 다시오지 않으니
 누구와 참·거짓을 이야기하나.
 내힘껏 바탕을 구축하고자 하나
 아무도 도와 줄 사람 없네.
 시삼백편 소리내어 줄줄 외운들
 풍자의 참뜻 모르면 소용이 없어.
 모르겠다 그만두면 그만이지만
 나홀로 소리치면 비웃는이 있겠지.

.....
 - 邈來作者輩，不思風雅義，
 外飾假丹青，求中一時嚮
 意本得於天，難可率爾致
 自揣得之難，因之事綺靡
 以此眩諸人，欲掩意所匱
 此俗寢已成，其文垂墮地
 李杜不復生，誰與辨眞僞
 我欲築頽基，無人助一糞

誦詩三百篇，何處補諷刺
自行亦云可，孤唱人必戲²⁴⁾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규보는 형식적이며 화려한 수식에만 힘쓰고 시의 주요 속성인 풍자성에 등한한 당시 고려시단의 퇴폐적인 분위기를 一新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없지 않았고 李白, 杜甫의 詩에서 그 典範을 찾으려 하였다. 그러나 李·杜에 비해 더욱 강열한 색채의 풍자시를 쓴 백거이의 시세계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었다라면 당연히 李白보다는 白居易에게서 그 전범을 찾았을 것이다. 만약 이규보가 백거이 壯年期의 시집인 《白氏長慶集》을 보았다라면 이런 式의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에서 이규보가 본것은 《白樂天後集》일 뿐이었을 것이란 推知가 가능한 것이다. 그가 《白樂天後集》을 통해 白詩를 이해했으리라는 점은 그의 《次韻和白樂天病中十五首序》에서도 알 수 있다.

나는 본래 시를 지나치게 좋아했다. 이 지나침은 늘 마음의 부담이 되었지만 심신이 괴로울 때엔 평소보다 몇배나 더 좋아 했는데 그 까닭은 나도 모르겠다. 늘 사물을 접할 때마다 詩興이 솟아 하루도 시를 짓지 않은 날이 없었는데 그만두려 해도 안되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병이라 생각하였다. 일찌기 《詩癡篇》을 지어 이러한 상황을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는 스스로 슬퍼한 것이다. 또 식사에 있어서도 밥은 늘 몇술을 뜨는데 지나지 않고 술을 마실 뿐이어서 늘 이를 걱정하였다. 뒤에 백거이가 늙마에 지은 《白樂天後集》을 보았는데 그역시 病中에 지은 시가 많았고 음주에 있어서도 나와 비슷하였다.²⁵⁾

24) 同上書, p. 447 「論語」

25) 予本嗜詩，雖宿負也，至病中尤酷好倍於平日，亦不知所然。每寓興觸物，無日不吟，欲罷不得，因謂之曰：此亦病也。曾著詩癡篇以見志，蓋自傷也。又每食，不過數匙，唯飲酒而已。常以此爲患。及見白樂天後集之老境所著，則多是病中所作，飲酒亦然。(同上書, p. 457)

이를 통해서 본다면 이규보는 만년에야 《白樂天後集》을 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두사람의 老境과 嗜好에서 공통점이 많았으므로 白詩를 次韻한 작품을 몇 수 남겼음을 알 수 있다.

三. 結 論

白詩가 통일신라시대의 시단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上考할 아무런 문헌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議論을 전개하는 것은 근본적인 무리가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鄉歌라는 독특한 詩歌形式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唐의 文化를 고르게 섭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신라에 있어 中國本土에서 조차 가장 영향력있는 시인이라고 말하기엔 어려움이 있는 백거이의 시에 대한 편향적인 愛好의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또한 漢文學 隆盛의 시기인 고려시대에 있어서도 白詩에 대한 경도적 분위기는 있는적이 없었고 朝鮮時代에 들어 와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신라의 상황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王室과 貴族社會에 白詩酷好라는 특이한 현상이 존재했음을 알려주는 文籍이 적지 않게 남아 있다. 또한 당시의 對唐文易窓口를 알아보는 地理的 考察에 있어서도 신라의 경우 長江以北인 山東半島가 對唐交易의 主舞台였고 日本의 경우 통일신라이후, 이른바 新羅道를 포기하고 長江以南의 江·浙地方이 대당교역의 주무대였던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 봐도 이른바 ‘계림육시설’은 ‘일본육시설’의 訛傳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 것이다. 元稹이 《白氏長慶集序》에서 ‘계림육시설’의 현장이라 말하고 있는 平水는 浙江省 紹興市の 東南에 위치하고 있으며 會稽山の 우측 자락에 있다.

신라의 상인들이 白詩를 사러 平水까지 가야했을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이지만, 일본상인들의 경우 遣唐使가 長安까지 往復하는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이루어졌을 商行爲의 主舞台가 바로 이 지역이었던 것

이다.

對唐貿易에 있어서 外國가운데서 가장 큰 상대국이 신라였고 그다음
이 일본이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唐의 서적상이 일본인을 신
라인으로 誤認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筆者는 이른바 ‘계
림육시설’은 ‘일본육시설’의 訛傳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한
다.